

# 다윈 제자 12명이 펼치는 '진화 사도행전'

## 다윈의 사도들

최재천 지음



"다윈의 진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 줍니다. 모든 생물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은 그런 이론이 없었을 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죠"

피터 그랜트와 로즈메리 그랜트 부부는 "왜 다윈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두 부부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부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다. 이들은 갈라파고스 기후 변화에 따라 부리 크기가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이는 생명 진화를 보여주는 증거다.

BTS가 오늘날 세계적인 가수가 된 데는 '아이'라는 팬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이는 변방에 머물러 있던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견인했다. K팝의 슈퍼스타가 있듯이 생물학에도 슈퍼스타가 있다. 다윈이 과학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팬덤의 역할이 지대했다.

다윈은 재야의 생물학자였다.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도 아니었고 유명한 박물관의 연구원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다윈은 편지를 매개로 평생 2000명과 교류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다윈 서신 프로젝트'가 모아 놓은 편지만 1만4500통에 이를 만큼 '네트워킹의 귀재'다.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자 최재천 교수가 다윈의 제자들을 만났다. '다윈의 사도들'은 최재천이 만난 다윈주의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최재천은 이화여대에 고화학부 석좌 교수로 한국사회에서 행동 생태학과 진화 생물학을 개척하고 '통섭' 개념을 정착시켰다.

이번 책은 왜 다윈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구성은 '최재천이 묻고 세계가 답하는' 형식으로



최재천 교수(오른쪽)가 피터 그랜트·로즈메리 그랜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이언스 북스 제공)

이루어져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12명 인터뷰어의 면면은 화려하다.

앞서 언급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 핀치를 연구해 종의 분화와 생물 다양성 확대를 증명한 피터 그랜트와 로즈메리 그랜트 부부를 비롯해 자연 선택과 함께 다윈 진화론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성 선택 개념의 형성에 이바지한 헬레나 크로닌, 진화 심리학의 최전선에서 인간의 인지와 언어를 연구한 스티븐 핑커가 있다.

또한 맨텐의 유전학과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으로 다윈주의 통찰을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리처드 도킨스, 종교 등 인문학적 문제들을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철저히 재구축하는 생물철학자 대니얼 데닛, 영장류의 정통후계자이자 유인원 언어 연구의 개척자 마쓰자와 데스루도 있다.

한마디로 책은 위대한 다윈의 제자들이 펼치는 '진화

사도 행전'이라 할 수 있다. 당초 책은 2012년 초판이 출간되고 2022년 개정 증보판이 출간된 '다위 지능: 최재천의 지화학 에세이'와 짝으로 기획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난 2월 14일 타인 탄생 214년째 되는 날 출간됐다.

책에는 다윈을 화두로 삼고 생물학부터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통찰이 담겨 있다. 다윈의 진화론이 200년이 넘었지만 오늘날 생명과학 근본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고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무엇보다 리처드 도킨스의 말이 강렬하다. "다윈은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답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초거대 위험=부채 증가,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 정책과 과도한 양적 완화로 스태그플레이션, 통화 붕괴, 탈세계화 등은 향후 닥칠 큰 위험들이다. 뉴욕대 스타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누리엘 루비니는 앞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10가지 위기를 조망한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 20년 간 큰 파장을 불러올 각각의 시안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2만5000원>



▲아이들 타임=시와 소설의 경계를 허물고 문학적 상상력을 확장해가는 신예 조시현 시인. 문학과지성사 2002년 시인 선 첫 책으로 출간된 시집은 별종된 '지구 인간'을 중심으로 지구 관련 이야기를 담았다. 제목으로 쓰인 '아이들 타임'은 컴퓨터를 작동하지 않고 입력과 출력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시인은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를 온전히 감각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도둑맞은 자전거=대만 현대화 과정은 물론 식민시대의 역사, 전쟁에 휩쓸린 인간과 동식물의 일생을 직조한 작품. 대만 최초 맨부커상에 노미네이트됐으며 리브로 앤솔레르상 수상 작가인 우망이의 국내 첫 장편소설로 잃어버린 시대를 추적하는 삶의 대서사극이다. 싱크타이완은 "도둑맞은 자전거를 찾아가는 여정은 상

실과 이별, 삶과 죽음, 모진 시대의 애달픈 속명을 맞닥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한다. <비채·1만7800원>

▲SF와 함께라면 어디든=SF는 무엇이든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다면 심원선 SF 평론가는 SF에 대해 "우리 안의 다양한 일원들이 상호작용하며 공유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말한다. 시간과 공간 경계를 벗어나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마음 테두리를 확장하도록 아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저널·1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공의 여왕=연극공의 군더더기 없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책. 먹기 싫은 콩과 보기 싫은 동생이라는 두 가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벌이는 상상 놀이를 책으로 엮었다. 주인공은 새로 생긴 동생에게 그 사랑을 빼앗기고 먹기 싫은 콩 한 접시를 앞에 두고 공주에서 벗어나 여왕이 되기로 결심한다. 대화가 반복되면서 생성되는 운율은 소리 내 책을 읽는 재미를 준다. <지양사·1만3500원>

다. 마을 사람들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놀랍고도 잊지 못한 순간들을 경험한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씨의 입을 꼭 다물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주니어김영사·1만4000원>

▲이야기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생긴 일=작고 평범한 어느 마을에 '옛날 옛날에' 씨가 태어났다. '옛날 옛날에' 씨는 자라나 이야기꾼이 되었고 흠어진 낱말을 모아 멋진 이야기로 엮은 뒤 사람들에게 들려주었

▲관찰아, 나탈리=스스로를 '충분하다'는 말과 거리가 먼 아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11살 소녀 나탈리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는다. 단짝 친구 릴리의 갑작스런 절교 선언, 새롭게 사귀 친구들과의 만남, 두근두근 설레는 첫사랑 시작 등 일상은 평범해보이지만 다양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일어난다. 과연 나탈리는 베프 릴리와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 <한빛에듀·1만5000원>

# 내가 돌보고 나를 돌보는 반려 물건에 서린 추억과 인연

## 사는 마음

이다희 지음



인터넷 책 판매 사이트의 장바구니에는 오늘도 많은 책이 담겨 있다. 원하는 책을 속속 사들이면 좋으련만, 그걸 감당할 '돈'을 생각하며 몇 권만을 추린 후 슬그머니 사이트를 닫는다. 집 안에 쌓여만 가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선택의 연속이다. 오래된 물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도 같이 떠올라 쉽사리 버리지 못한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타인의 기원' 등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가 이다희의 에세이 '사는 마음-나를 돌보는 반려 물건 이야기'는 소비와 소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저자의 말처럼 어딘가 화수분을 숨겨 둔 사람이 아니라면, 매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늘 사야 할 이유와 사지 않을 이유를 저울질 한다. 저자 역시 처음에는 물건의 유용성과 가격, 쓸 수 있는 돈, 필요 등을 비교했다면 지금은 "추억의 가치, 브랜드의 윤리성, 환경이나 장작물의 가치 보호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까지 더해져 저울질은 더 복잡해졌다고 말한다.

저자가 귀찮은 저울질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리 기울였다 저리 기울였다 반복하는 천칭은 나를 보여주는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세상과,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돌보는 물건, 나를 돌보는 물건', '충동이 없으면 지불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 사고, 사기 위해 산다'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책, 의자, 신발, 가방, 식물, 웨딩드레스, 노트, 자동차 등 다양한 물건들이 등장한다.

오래도록 곁에 두고 사랑한 물건에는 추억이라는 이름의 영혼이 깃든다고 믿는 저자는 가장 소중한 순간을 선사해준 물건들에 대해 들려준다.

첫 번째 글은 아버지가 물려준 '책장'에 관한 이야

기다. 자신을 번역의 세계로 이끌었던 아버지 고(故) 이윤기 번역가가 남긴 오래된 책장을 11년만에 처분하면서 그는 굳이 아버지의 책장을 내팽개치고 내 것으로 채우는 이유에 대해 "내가 나오서 홀로 서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사람이 홀로 선다는 것은 나를 아껴 준 사람의 물건과 작별하는 일이라면 곧 나를 아껴 준 사람의 영혼과 작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세월이 필요한 일일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또 작업용 책상으로 쓰는 6인용 식탁은 점점 낡아가지만 "물건을 돌보면서 쌓은 정은 첫눈에 반하던 순간의 짜릿한 희열을 능가하는 마음의 풍요로움, 안정감을 선사"하기에 쉽사리 버리지 못한다.

추천사를 쓴 정여울 작가는 "반려 물건에 굽이굽이 서린 추억의 온기와 온갖 인연의 흔적을 파스하게 담아낸 책을 읽다 보면 은밀하게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치고 싶은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말한다.

(한겨레출판·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